

무농약 무화과 연 5억 소득 올린다

영암 에덴동산 영농조합법인 3년째 웰빙 재배 소비자 건강 최우선... 내년엔 유기농 인증 도전

‘꽃이 피지 않는 과실’로 불리는 무화과(無花果)는 실제로 꽃은 과실 내에서 피므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 등지에서 스테미나 식품으로 이용할 정도로 재배역사가 길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역시 웰빙 열풍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화과를 무농약으로 재배해 고소득을 올리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어 화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삼호읍에 위치한 ‘에덴동산영농조합법인(대표 황경숙)’은 영암 특화품목인 무화과 3ha를 지난 2008년부터 무농약인증을 받아 생산,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등에 2.5kg 1상자당 3만3000원에 납품해 일반재배(3만원)보다 3000원 높은 가격으로 판

매해 연간 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김철호(58·사진)씨는 “무화과는 원래 뽕나무과 식물로 옛날부터 열매는 물론 나무와 잎까지 한약재로 사용돼왔다”며 “요즘 참살이(웰빙)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무화과는 특성상 겉껍질째 먹어야 하는 관계로 잔류농약 등 소비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무농약 3년째에 접어든 이 법인은 내년에는 유기농인증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연중 공급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관리를 확보해 농가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화 전남도 친환경농업 과장은 “현재 무농약인증을 받고 있는 단지들을 점차적으로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화과, 잼, 음료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무화과 재배면적은 ▲영암 264ha ▲해남 60ha ▲신안 59ha 등 총 504ha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 연간 4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담양군 고서면 국도변에 배롱나무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배롱나무는 줄기가 매끈해서 ‘원숭이미끄럼나무’, ‘간즈름나무’로도 불린다.

(담양군 제공)

광산구 노사 상생 실천 선언 노·사·민·정協 내일 구청서 협력 구축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 협의회가 자치구 최초로 노·사 상생에 발맞추고 나선다.

광산구 노·사·민·정 협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노·사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준열 광산구의회장, 김하업 광산구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장, 최정열 금속노련 광주·전남본부장, 유희열 광주경영자 총협회장, 송문현 광주지방노동운동장, 이기자 광산구여성경제인연합회장이 참석해 선언문에 서명한다.

선언문은 ▲고용 안정 ▲노사 상생 ▲경제 활성화 세 분야에서 노동자, 사용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합리적 교섭 관행 정착(근로자) ▲근로시간 및 임금 조정·배치전환 등을 통한 고용 안정(사용자) ▲노사의 노력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주민) ▲고용 네트워크 구축·새 일자리 창출(정부)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상생을 위해서는 고통의 분담·기업 경쟁력 강화 협력(근로자), 인간중심의 윤리 경영(사용자), 노사 상생 기업 제품 구매(주민), 인적 자부방·고용노동청장, 이기자 광산구여성경제인연합회장이 참석해 선언문에 서명한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상생의 가치를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경제 주체와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장흥 용산농협 주민사랑 7년째 주민세 대신 납부

장흥군 용산농협(조합장 이경수)이 7년째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용산농협은 최근 2011년도 ‘개인균등합 주민세’ 1209건(1인당 5000원) 총 604만 5000원 납부했다.

용산농협의 이러한 선령은 지난 2005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을 기부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용산농협은 독거노인 돌봄 단체인 ‘아름드리봉사단’ 운영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운영 등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영암 도기박물관 생활도에 교실 운영

내달부터 3개월간

영암 도기박물관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황토로 빚는 웰빙’이라는 주제로 생활도에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생활도에교실은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초과정과 물레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은 흙을 손으로 주물러 만드는 손빚기 과정으로 타래쌓기나 점토판을 이용해 컵·접시·차잔·화분 등 생활도기를 비롯해 화병·단지 등을 제작한다.

또 심화과정은 기본 손빚기 과정을 거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손빚기 기법과 물레성형을 접목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생활 도예교실은 주 1회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주1~2회 체험 공방시설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K-water 장흥댐 홍수 피해 예방 기여

태풍 대비 예비 방류

K-water 장흥 댐이 태풍 ‘미이과’에 따른 댐 상·하류 홍수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K-water 전남서남권관리단은 “지난 7일 홍수유입량 전량(1500만㎥)을 댐에 저류하고 8일부터 방류(초당 최대 100m)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하루 제방 범람위기와 침수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장흥댐 유역은 지난 7~8일 태풍 ‘미이과’ 내습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초당 442m의 빗물이 유입됐다.

이에 앞서 전남 서남권관리단은 7월말부터 추가적인 태풍 및 집중 강우에 대비해 선제적 예비 방류를 시행했다.

전남서남권관리단 강영욱 운영팀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군산 새만금·시화 반월 등 국가산단내

13개大 참여 대학캠퍼스 조성

산학융합지구 사업 협약식

군산·새만금과 시화·반월, 구미·왜관 등 3개 국가산단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QWL 캠퍼스)를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산업기술대 등 13개 대학 및 한국산단단지공단과 함께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협약식을 열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는 군산대, 전북대, 군장대, 호원대 등 4개 대학의 연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조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주택과 농경지가 지난 9일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물바다로 변해버렸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정읍 420mm 물폭탄, 피해액만 168억

농작물·주택 침수 도로 유실 등... 계곡 펜션촌 영업중단 여름장사 망쳐

태풍 ‘미이과’가 동반한 강풍과 폭우로 군산과 부안, 김제, 익산 등지에서 큰 피해가 난 데 이어 9일에는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정읍과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 산간 지역에서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작물과 주택피해는 물론 여름 특수까지 사라졌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읍, 420mm 물폭탄= “살다살다 이런 억수 같은 비는 처음입니다.” 정읍시내를 흐르는 정읍천 바로 옆 야산 아래 대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차영준(61)씨는 9일 낮 쏟아진 물폭탄을 회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자정기 준으로 정읍지역 누적강수량이 441mm에 달했다. 9일 하루에만 1969년 관측 이래 사상 유례없는 42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10일 오후 현재 정읍시의 잠정피해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액이 ▲도로와 하천 등 일반 공공시설

140억원 ▲철도시설 등 국가 공공시설 15억5000만원 ▲농작물 피해 및 주택침수 등 12억원 등 모두 167억 5000여만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지난 9일 폭우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군부대 병력 563명과 1400여명의 전직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 피해 상황 파악과 건물 붕괴우려 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을 실시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10일 수해현장을 찾은 이기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1호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름장사 망쳤다” 울상= 해수욕장과 계곡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도내 관광업계가 잇단 강풍과 호우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여름 한철 장사를 잔뜩 기대했던 해수욕장과 계곡의 상기는 물론 콘도에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피

임실 관촌 고추시장 개장

10월까지 5·10일 장날 맞춰

임실군 관촌 고추시장이 문을 열었다.

임실군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관촌 고추시장이 최근 문을 열면서 대도시 상인과 일반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관촌 고추시장은 매년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관촌 장날인 5일 10일에 맞춰 열고 있는데 이 지역 고추는 섬진강의 맑은 물과 큰 일교차로 맛과 향이 뛰어나고 고추의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임실 고추가 널리 알려지자 외지 상인들이 상품성이 낮은 다른 지역의 고추를 들여와 새벽 3시부터 거래를 시작해 명성을 떨쳐뜨리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추시장을 오전 6시에 개장하고 있다.

관촌시장은 전통 고추시장으로 지난해 시장 현대화사업의 하나로 관촌면 관촌리 일대에 고추 직판장과 일반·야외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새롭게 단장하면서 생산자와 전국의 도시민들이 찾는 만남과 거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아직 고추 수확량이 적어 많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임실 고추의 우수성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고추 명품화를 위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출하농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지역은 군 전체농가의 80%인 4900여 농가에서 고추 1417ha를 재배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道内 건축물 대상 건축문화상 공모

전북도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건축문화상에 응모할 작품을 공모한다.

2000년부터 시행된 건축문화상은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와 건축주, 건축 창작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전북도의 건축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 상은 도내

쌍방울트라이그룹, 속옷류 8730점 기탁

(주)쌍방울트라이 그룹은 지난 9일 익산시청에서 자체 생산품인 속옷류 8730점(1억1700만원 상당)을 익산 행복나눔마켓에 기탁했다.

이날 최재성 대표이사는 “익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준공된 지 5년 이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지구내 특화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계획 설계와 구조, 시공, 재료, 설비 등 공학분야도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응모작품 접수는 10월 17~18일 이틀간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100명의 직원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작은 정성이나마 되돌려 주고 싶어 이번 기탁을 하게 됐다”며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고창군 찾아가는 미술관 여름나기전

고창군은 10일부터 31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 기획전실에서 전북 도립미술관 소장품 순회전 ‘미술관 속 여름나기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그림 감상과 같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아가는 작은 미술

관’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회는 도내작가로서 처음으로 해외 경매시장(옥션)에서 당당한 얼굴을 내밀며 일약 전국적인 관심 작가로 떠오른 서양화가 류재현의 작품 ‘로드’를 비롯해 한국화와 서양화, 사진 등 총 23점을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순창군 장류 명품산업화 교육생 모집

순창군은 ‘순창 장류(醬類) 명품산업화 인력양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론과 실습 위주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장류 제조반(20명)과 장류 조리반(20명)을 구성해 오는 1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는 현재 사업자 또는 취업상태가 아닌 순창장류 명품 산업화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2개월에 걸쳐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